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갈리도 전초기지와 장재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후방공급실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이곳 방어대에서도 수산부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적들과의 대결은 불과 불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라고 하시면서 방어대 군인들을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정신력의 최강자들로, 계급무쟁의 제1선에 선 사회주의수호자들로, 조국통일의 맹장들로 역세계 준비시키자면 그들에게 사상적양식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컴퓨터 자료전송체제를 리용하여 군인들이

매일 탕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상식자료들도 학습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립독도서들과 더 많은 교양자료들을 내려보내주어 빨찌산식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가게 하자고,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군인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소양을 소유한 팔방미인들로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장재도방어대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한쪽의 그림자라고, 주변환경정리를 정말 잘하고있다고, 땅에서 품들어 꾸러준 병실들과 살림집들을 깨끗이 관리하고있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2년 8월 방어대를 돌아보면서 기후풍토에 적합한 나무들과 지피식물들을 선정하여 심을 푸른 숲으로 전면시킴에 대하

여 지시하였는데 그동안 나무심기를 잘한것이 알린다고, 장재도가 불라보게 달라졌다고, 맨땅이 드러나 별건 섬이던 장재도가 푸른 섬으로 전변되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적정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와 방어대의 전투임무수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활력진지들을 돌아보시면서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의 경성적인 전투돌원준비실재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방어대에 서 포무기를 비롯한 전투기술기재들에 대한 정상관리를 정말 잘하고있다고, 온 나라에 소문난 방어대가 역시 다르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은 자기들의 무기, 전투기술기재를 싸움의 날 불비속을 함께 헤쳐가야 할 전우로 생각하며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해야 한다고, 총대에는

탕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군인들의 높은 총정신과 리없이 깨끗한 향심이 비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장재도방어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인 포병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실전에 써먹을수 있는 화력타격조직과 지휘능력을 더욱 높일때 대한 문제, 싸움의 전지에서 전투진지들을 더욱 요새화하며 위장을 잘할때 대한 문제, 급변하는 정세와 전진정황의 요구에 맞게 항시적으로 강력한 화력타격준비태세를 갖추는데 대한 문제 등 장재도방어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장재도방어대 군인들이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

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방어대의 전체 군인들, 군인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갈리도전초기지와 장재도방어대의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은 위험천만한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자기들의 초소에 찾아오시며 오랜 시간 함께 계시며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 최상의 영광을 안겨주시고 원추적멸을 위한 백전백승의 방략을 밝혀주시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결사판필하여 조국의 최전방성초소를 당중앙결사옹위의 성새, 김정은결사옹위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